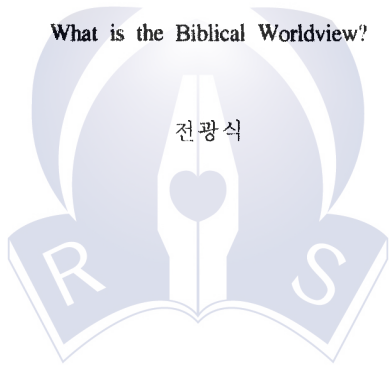




· 연재: 기독교 세계관 II ·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Biblical Worldview?



개혁주의 하스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I. 닫힌 세계관과 열린 세계관
- II. 성경적 세계관의 기본틀
 1. 창조(創造)
 2. 타락(墜落)
 3. 구속(救贖)
- III. 성경적 세계관의 종합적 의미



전광식

남덕유산 아래 화림동 계곡의 새들마을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신학, 기독교 교육학, 철학(고신대 M.Div., M.A.)을 공부하고 대구에서 신학교 강의와 교회 봉사를 하다가 1985년 봄에서 90년 봄까지 독일의 Regensburg(Ph.D.), München 대, 영국의 Oxford대학에서 고대 철학과 독일 관념론을 전공했다. 현재 고신대학 신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철학 및 기독교철학 담당교수로 봉직하고 있고 본지 『통합연구』 편집인으로 봉사하고 있다. 저서로는 *Die Geistontologie und das Transzendenzproblem bei Platon und Hegel*, 「서구의 황혼에 대한 세 가지 생각이 있다.

우리는 세계관을 정의하면서, 그것이 개인이나 집단이 세계를 보는 관점이든지 세상을 사는 근본방식이라 규정했다. 그래서 세계관을 소박하고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인간은 혹 그들이 그것을 의식하든 못하든 예외없이 자기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은 아이가 보는대로 어른은 어른이 보는대로의 세계관이 있고, 또 세상을 낙천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에게 맞는 세계관이 있고 세상을 염세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에 따르는 세계관이 있다. 이것은 광의적으로 볼 때의 세계관으로 이런 세계관을 일상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세계관을 규정할 때, 그것이 세계를 보고 삶을 영위하는 하나의 인식 내지 신념체계(信念體系)라고 했다. 이렇게 세계관을 정의해 본다면 그것은 어떤 체계성을 지닌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협의적 의미에서의 세계관으로, 일상적 세계관과 구분시켜 학문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어떤 문명권이나 종교 또는 철학사조에 따라 형성되기도 하고 구분되기도 한다.

우리는 문명권에 따라 동양적 세계관과 서양적 세계관으로 나눌 수 있고, 또 히브리적 세계관과 헬라적 세계관을 얘기할 수도 있다. 우리는 또 종교에 따라 기독교적, 힌두교적, 유교적, 불교적, 회교적, 도교적, 천도교적 세계관을 논할 수 있고 그리고 샤머니즘적, 유신론적, 무신론적 세계관을 말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는 철학경향과 사조에 따라 관념론적, 실재론적, 유물론적, 합리주의적, 경건주의적 세계관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구성체제로 된 학문적 세계관만 보더라도 너무나 다양하며 다 셈할 수도 없다. 기존의 몇몇 학자들은 자기 나름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이 세계관을 구분하고 갖가지 유형을 얘기했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과 유형을 여기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다.

I. 달한 세계관과 열린 세계관

다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세계관을 보는 관점 내지 기준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이것에 관한 관점과 잣대도 우리는 성경에서 취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행동의 기준이요 지침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인식의 토대를 제공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세계관의 원리와 내용을 끄집어 낼 뿐 아니라, 세계관을 보고 식별하는 원리도 이끌어 낸다.

성경적 사상이 제시하는 원리에 따라 세계관을 볼 때 거기에는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하듯이 두 종류의 세계관이 있음을 본다. 즉 신조품적 세계관(神造品的 世界觀)으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있고, 또 인조품적 세계관(人造品的 世界觀)으로 그밖의 세계관이 있다. 전자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던 계시적 세계관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계관이고 후자는 인간이 축적된 경험과 사유를 통하여 형성한 세계관으로 역사상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들로 나타났다가 생성소멸한 세계관이다. 또 전자는 하나님과 그의 계시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얻어지는 신앙적 세계관이고 후자는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이 자기판단과 관점을 과시하는 데서 생기는 세계관이다. 이 인간적 세계관은 타락한 인간의 세계관이고, 계시된 세계관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받은 인간이 갖는 세계관이다.

인간이 만든 세계관은 그 성격이 ‘닫힌 세계관’(closed worldview)이다. 이 말은 인간은 세계관을 구성할 때 그가 보는 자연세계, 또 그가 사는 이 현실세계만 가지고 세우지 그 밖의 자연세계 너머의 하나님의 세계, 영계와 내세를 모르고 배제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혹 신화를 말하는 이들이 신들의 세계를 말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초월계가 아니며 인간이 만든 세계에 불과하고, 혹 종교들이 신을 얘기하고 계시를 얘기해도 그것은 인조적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관과 다르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세계관이 ‘닫힌 세계관’이라면 기독교 세계관은 ‘열린 세계관(open worldview)’이다. 그것은 단순히 지상차원, 현실차원, 역사차원 속에 닫혀있는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상을 넘어 천상, 현실을 넘어 내세, 역사를 넘어 피안의 세계를 말하고 수용하므로 ‘열린 세계관’을 얘기한다. 닫힌 세계관에서는 세계와 역사 바깥에 있는 신이 역사와 세계 속에 간섭하는 것을 부인하지만, 열린 세계관에서는 내세와 초월계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세계가 이 역사와 세계에 영향을 주고 관계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보다도 어쩌면 한층 더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이 세계를 간섭하신다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아예 하나님 편에서 세계를 보려고 한다. 사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세계와 자신에 대해 말하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역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의 구성과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고 보시고 행하신 것을 찾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인간은 그 자신의 능력만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세계를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계를 보시듯 그렇게 볼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신 이 세계의 기원과 구조,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은총적 세계관이다.

달한 세계관은 모든 것을 세계 안에서 찾으므로 세계의 기원과 의미를 찾는다 하더라도 세계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세계의 기원은 결국은 세계 바깥에 있든지 아니면 적어도 세계와 세계 바깥의 경계에 있을 것이므로 이 달한 세계관은 그것을 찾기 어렵고, 또 세계의 의미와 목적도 세계 안에서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전등이나 책상을 볼 때 그것을 만든 이가 그것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했다. 그러므로 전등이 지니는 진정한 목적과 책상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는 그것을 만든 이의 뜻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달한 세계관은 세계의 기원과 구조,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지 못하지만 열린 세계관은 그것을 바로 말할 수 있다.

II. 성경적 세계관의 기본틀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다. 성경은 세계의 기원과 의미, 그리고 그 본질과 목적을 명확히 제시한다. 세계에 대한 성경적 견해는 풍성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우선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요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죄로 인해 타락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의해 회복되었다.

둘째, 세계는 시공적으로 유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존재하고 의미를 부여받는다.

셋째, 세계는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세계는 단순히 물리적 현상만 일어나는 자연세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면 의미를 부여하시는 영역이고, 또 여기에서 인간은 단순한 지상적·육체적 존재로서 머물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삶을 영위하고 살며, 또 그 삶의 의미도 내세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은 첫 번째에서 말한 창조, 타락, 구속의 내용에서 종합적으로 잘 구현된다고 보여진다. 사실 Calvin이 언급하고 훗날 A. Kuyper와 H. Dooyeweerd 등이 체계화 한 성경적 세계관의 기본틀은 창조-타락-구속이다. 이것은 기독교철학의 종교적 동인이기도 하고 모든 기독교적 학문의 패러다임이기도 하다.

창조에는 세계의 기원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세계의 모습이 잘 설명된다. 타락에서는 이 세계의 변모된 성격을 말해주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죄가 많고 고통과 전쟁이 있고 문제투성이인지를 말한다. 구속에서는 이 세계가 과연 새로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 이 창조-타락-구속의 원리는 닫힌 세계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세계가 세계 바깥의 그 무엇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창조를 모른다. 또 닫힌 세계관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 선하다, 악하다는 정도로만 말하지 그것이 타락 때문인 줄은 모른다. 또 그것은 이 세계를 단순히 개조시키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간주하지, 그것의 근본적 치유를 모르고 참 치유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동인인 창조-타락-구속은 세계를 보는 관점을 줄 뿐 아니라, 신관·인간관·역사관·문화관·자연관·윤리관·가치관 등 모든 것을 자기 속에 수렴하여 그런 포괄적인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 세계

관적 관점을 제시해 준다. 우리는 먼저 이 세 요소를 개별적으로 살펴본 뒤에 그것의 종합적 의미를 논해 보고자 한다.

1. 창조(創造)

창조는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밝혀주므로 세계관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성격을 규명한다. 성경의 창조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명제에 집약되어진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자유적인 의지로 무(無)에서 창조하시되 생물을 종류별로 온전하게 창조하셨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영적 존재와 만물의 영장이 되었고 만유에 대한 문화적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다. 셋째,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그의 선하심과 사랑에 있고, 따라서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본분이다.

이런 창조의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피조물, 또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를 알 수 있고, 또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규정되는 하나님과 피조물 각 존재의 모습과 성격을 알 수 있다. 특히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코넬리우스 반틸 같은 이들이 강조했듯이 건너될 수 없는 ‘분명하고도 명확한’(clear and distinct) 존재론적 간격이 있음을 본다. 또 사람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는데, 그는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피조물처럼 영성이 없는 존재도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우리의 주목을 새삼스럽게 끄는 것은 인간은 만유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점이고, 따라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결과는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생태계 파괴가 결국, 오로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자연을 개발하고 정복함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근거를 가질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인데 마치 주인이 된 양 하나님의 영광을 제쳐두고 자신의 욕망 성취만 위하여 화려하게 살아보고 유토피아 같은

것을 지상에 건설하기 위하여 자연을 수단과 목적으로 삼아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착취하였던 것이다. 하여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는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과 하나님 없이는 세계의 존재와 의미는 없음을 말해준다. 요컨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 그리고 세계의 세계됨을 얘기한다.

2. 타락(墮落)

타락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임하지 않은 현 세상과 자연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 주는 것으로 그것은 다음의 세 명제에 잘 집약된다. 첫째, 타락은 인간이 자신의 본분을 떠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결정적으로 불순종한 사건이다. 둘째, 타락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그 영향력이 인간뿐 아니라 그가 대표로 있는 전피조영역(全被造領域)에도 임하는 것으로 보편적인 것이다. 셋째, 타락은 인간과 전피조물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배도와 불신의 길을 걷고 결국은 진리도 잃고 선도 행할 수 없는 탕자와 미아의 처지에 빠지는 사건이다.

창조가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말한다면 타락은 무엇보다 먼저 인간과 세계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다. 물론 여기서도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그의 공의의 모습도 등장하지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명령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사탄의 길을 따르는 인간의 모습이다. 타락의 문제와 그 결과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고 사탄과의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은 우선은 인성에 영향을 주고 다음은 다른 피조영역에 영향을 끼쳤다.

아담의 범죄는 원죄가 되며 칼빈주의가 잘 강조하는 바대로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시켜 이제 인간은 그의 생각, 의지, 욕망, 언어와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과 원의(原義)를 떠나 악하고 부패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개인적으로 인간은 욕망과 이기주의의 노예가 되었으며 그 가치관과 인생관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되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인종차별, 기아와 전쟁, 부정과 부패, 향락적 세속문화같은 열매를 맺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거나 거짓종교들을 만들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전적타락과 그것의 결과에도 인간은 타락 중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일반은총으로 여전히 만유의 영장으로 있고 또 창조 때 그에게 주어진 언약적 관계에서 자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성취하여 그의 종교적, 도덕적 명령을 실천할 수 없고 아울러 그의 문화적, 지적 명령도 옳게 준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타락사건은 땅도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했으며, 또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도 단절시켜 버렸다. 인간과 자연의 분리는 인간이 자연을 조화롭게 개발시키지 못하도록 했으며 또 인간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연을 정복하게 했다. 여기에도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근본원인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죄는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주어 과거의 인류사를 피와 정복, 지배의 역사가 되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개인의 문화로부터 욕망성취와 우상숭배의 타자문화, 바벨탑문화를 형성하게 했다. 또 죄는 진리와 지식체계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초월적 진리를 가질 수 있고 또 갖는다는 착각에 빠지게 했다.

요컨대 타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의 세상과 그 속의 자연인이 죄 아래 놓여 있음을 말하고, 또 그것들이 정상이 아닌 비정상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나아가 타락 후 하나님이 인류를 낙원에서 추방하여 그룹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게 한 것은 다시는 지상에 에덴과 같은 낙원을 주시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타락은 우리에게 인간이 다시는 지상에서 낙원을 소유할 수 없고 또 낙원은 역사 이 편에 있는 것 아니라 역사의 저편에 있는 것임을 말해 준다.

3. 구속(救贖)

구속은 이 세계의 궁극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명제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구속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신 사건이다. 둘째, 구속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인생의 본분을 알고, 나아가 하나님과 삶과 세계에 관한 바른 진리를 성경과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세계와 문화 그리고 역사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어 우상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하며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역사의 피안에 도래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제공한다.

구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즉 창조가 하나님과 인간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상호간의 간격을 말한다면, 타락이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 구속은 그에 반해 하나님이 인간 되신 사건이었다. 나아가 타락에서 구속의 과정에 이르는 것을 죽음의 논리로 본다면 타락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사건이고,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며, 이제 우리가 그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것은 우리의 죄가 그 안에서 죽은 일이다.

구속사건은 탕자되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계기를 마련하고 길을 준비하여 초청하신 사건이고 그 은총을 입은 자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창조 때 주신 사람의 본분대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 노릇하고 살았으며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영적 공허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살아가게 된다. 또한 구속은 인간을 원리적으로 타락 이전의 위치로 돌려주므로 타락 이전, 즉 창조 때 주신 문화적인 명령을 충분히 수행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류에 대한 이런 의미 외에도 역사와 문화에 주는 의미도 큰데, 특히 그것은 타락으로 인해 손상되었던 만유를 회복시켜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이 되는 구속의 문화를 형성하게 한다. 즉 지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하늘의 문화를 이루게 한다. 타락은

역사를 인간이나 우연이 이끄는 것 같이 보이게 하지만, 구속은 참 역사를 이끄는 분이 하나님임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 이 구속사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와 역사를 오늘날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구속에서 타락으로 인해 왜곡되고 흐려졌던 세계관이 회복되고 학문의 기초와 방향도 새롭게 된다. 학문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요 학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것의 결과와 목적도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임을 알게 한다.

나아가 이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지상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독립적 가치가 있음도 보여주지만 아울러 종말 이후에 보는 하나님의 나라로 기독교 세계관의 궁극적인 시선을 돌리게 한다. 말하자면 구속이 세계관에 주는 궁극적인 의미는 세계는 언젠가 사라지고 그 이후에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바른 세계관을 갖는 것은 구속 때문이지만, 또한 이 구속은 궁극적으로는 '세계관'을 없애버린다는 것이다.

III. 성경적 세계관의 종합적 의미

이제 구속의 관점을 집약적으로 논의하면서 성경적 세계관의 종합적 원리를 약술하고자 한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연구 개발한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에서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창조 목적의 성취와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점이다.

그에 의하면 타락으로 인해 손상되었고 훼손되었던 창조의 목적과 문화명령이 구속을 통하여 회복되었으므로 그 구속에 참여한 성도는 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사상을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으로 보았고, 이런 사상을 잘 표명하고 있는 신학이 칼빈주의라고 간주하였다.

Kuyper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걸쳐 기독교가 근대주의(modernism)의 공격에 직면하여 나약하게 된 이유를 기독교가 근대주의에 필적할만한 전모

팔적 원리, 통일적 실재관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그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세계에 대한 무관심과 내세중심주의로 일관한 신비주의에서나 또는 이성에 의한 실재해석과 계시에 의한 실재해석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천주교신학에서도 찾지 못하고 칼빈의 사상에서 찾게 되었다. 칼빈주의는 그에 의하면 현실에 대한 도피나 이원론을 주장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내세의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 지향점으로 얘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조세계에 대한 바른 관심과 신자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칼빈주의와 카이퍼가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요컨대 구속받은 자가 구속으로 회복되어진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성경이란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지만, 그 때 우리는 오로지 영혼 구원, 교회 중심, 내세 지향의 길에만 서게 하는 게 아니라 창조 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도 하게 한다. 물론 전자는 궁극적이고도 본질적인 과제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독교 신자가 피조세계에 대한 바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우리를 현세에서도, 또 삶의 전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경륜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길가의 민들레 한 포기에서부터 세계의 불가사의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른 한편으로는 나 개인의 삶에서부터 우주적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영역, 곧 학문, 과학, 예술, 정치, 경제, 노동, 교육, 가정,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주이신 그를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해야 한다.

사실 신앙이란 것은 어떤 국지적이거나 일시적인 변환이 아니라 총체적이고도 영속적인 변화이다. 우리가 만일 교회 내의 삶과 신앙의 좁은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밖의 우리의 모든 사회적 삶을 내팽개치고 무관심한 태도나 도피의 자세로 일관한다면 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제



한하는 우를 범하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또 나아가 우리가 교회 내의 삶만 신앙적으로 살고 그밖의 모든 일상 사회 생활은 비신앙의 자세나 아디오포라(adiopora)의 영역으로 돌려 무책임하게 영위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신앙과 생활의 분리 내지 이원화가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일어나게 된 주요한 배경이고, 또 오늘날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주요 목표도 거기에 놓이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화 내지 이분화는 생활을 신앙대로 살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창조-타락-구속의 기본 구도를 도입해 볼 때, 신분과 신앙은 구속의 영역에 속하지만 자세와 삶은 여전히 구속받지 못한 타락의 영역에 산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신자의 무지함에서 오기도 하고 신자의 연약함에서 오기도 한다.

신자들은 때로 현세는 사탄과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하여 단순히 나그네 의식만 지니고 내세지향적인 삶만 사는 편향적 자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그릇된 깨달음과 가르침에서 온 오해나 무지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는 신앙의 총체적인 측면을 알면서도 천국과 현세의 변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욕망과 연약함으로 이런 자세의 삶을 산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 한편으로는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북돋우고 격려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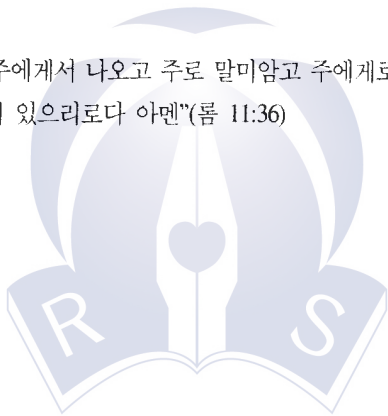
그동안 기독교는 현실문제와 사회문제를 무시하거나 방관하였기 때문에 무신론과 인본주의의 정신과 그 학문에 이 영역을 내버려둔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속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고, 나아가 세계와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춰진 부요를 잘 발견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구속의 관점에서 타락의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 또 우리의 삶도 바라보아야 한다. 그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세인이나 사회의 삶도 단순한 구조나 윤리적인 측면 정도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그 심층으로 흐르고 있는 영적 기류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로 하여금 만유에 대한 구속받은 자의 시각을 지니게 하고, 또 우리 삶의 총체적 영역을 구속받은 자로 살게 하고, 나아가 구속받은 자로 사회와 세상을 변하게 하는 개혁자가 되게 이끈다. 그것은 우리를 부단히 성경에 귀 기울이게 하며 그것을 배우게 하고 또 깨달아 행하게 한다.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에서 나와서 성경으로 돌아간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롬 11:36)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